여성발명강국 코리아 선포

한국여성발명협회 창립 14주년 축하행사 성료
여성발명인 15인 참여한 《환희》 출판기념식도

한국여성발명협회 창립 14주년 축하 및 《환희》 출판기념식이 지난 7월 3일 오후 6시 서울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·관계 인사를 비롯한 여성발명인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.

이날 행사에는 문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·한광원(열린우리당) 의원·전재희(한나라당)·유승희(열린우리당) 의원 등 국회의원과 조동성 서울대 교수, 한국발명진흥회 박상원 상근부회장, 안광구 대한변리사회장 등 관계인사,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·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보좌관 등 여성계 인사, 하상남·황소현 전 회장 등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, 손학규 전 경기지사·이명박 전 서울시장·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대선후보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.

한국여성발명협회는 이날 축하행사에서 협회 14년을 결산한 동영상 상영과 2008년 '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' 앰블럼을 발표하고 여성발명강국 코리아를 선포했다.

특히 여성발명인 15인의 인생과 발명이야기를 담은 책 《환희》 출판기념식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여성발명인의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여성발명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평이다.